

문3) 다음 글 중 '그(거지)'에게 있어 '돈'의 의미로 옳은 것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농에게 일 원짜릴 줘니까? 각전(角錢) 한 닢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닢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으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여덟 닢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大洋)한 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던 말ियो?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① 부귀의 상징

② 절대적 욕망

③ 생존의 수단

④ 부정적 가치

문4) 다음 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연은?

(가)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나)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다) 쇠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라) 산평도 숲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
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5) 밑 줄 친 단어 중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이것은 일찍이 우리 나라에 없었던 일이다.

② 아물든 이번 한 번만은 더 그를 믿고 일을 맡겨 봅시다

③ 네 주장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 거꾸로 생각해 보아라.

④ 이번 일을 해결하느라 아버지로부터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문6) 다음 시의 주제와 상통하는 한자 성어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秋石)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天)에 호곡(呼哭)하리라.

① 맥수지탄(麥秀之嘆)

② 은인자중(隱忍自重)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④ 새옹지마(塞翁之馬)

문7) 다음 작품에서 ‘폭포’의 의미에서 연상될 수 있는 인물로 가장 가까운 것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문12) '독서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글을 쓸 때 아래 개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서론 : 인간은 이상을 추구한다.

본론 : • 이상을 실현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 _____

결론 : 따라서 인생에는 독서가 필요하다.

- ① 지식이 함께 노력도 있어야 한다.
- ② 지식은 체험을 통해 얻을수 있다.
- ③ 지식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④ 책은 인생에서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문 13) 다음 중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아리 활동은 인간 관계를 폭넓게 한다.
- ② 이성 사이에 우정은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 ③ 청춘은 인생에 있어서 봄이고 노년은 인생의 가을이다.
- ④ 통일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14)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게 묶인 것은?

- ① 밝다[박따], 끊기다[끈기다]
- ② 끓이다[끓히다], 눈요기[눈노기]
- ③ 부엌을[부어글], 원리[월리]
- ④ 세다[썰다], 월요일[워요일]

문 15)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의 한문장은?

- ① 燕雀 安知 鴻鵠之志哉아
③ 過千里者는 三月聚糧이라
④ 農夫는 餓死라도 枕闕種子라

문 16)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체계를 이루는 각 항목이나 범주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변화를 입게 되면 다른 항목이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 전까지 유지되어 있던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즉,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중세 국어의 ‘모음이 점차 소실되자, 그것이 담당했던 의미 분화의 기능이 몇 개 모음으로 분담되었다. 그래서 ‘ㅁ술’이 ‘마을’이 되고, ‘소매’는 ‘소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첫 음절의 ‘ㅁ’은 ‘ㅂ’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ㅁ’은 ‘ㅁ’로 바뀌었으며, 어떤 것은 ‘ㅂ’로 변하기도 했다는 설명해 왔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국어의 모음 체계 자체가 달라진 것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모음이 소멸된 결과, 그 모음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이 ‘ㅂ’, ‘ㅁ’, ‘ㅂ’의 세 모음에 분산되어, 이 세 모음이 담당해야 하는 단어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상술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 17) 다음 글로 미루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인류는 그 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살아 왔으며, 20세기의 과학 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 오염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 낸 것도,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 기술자이다.

- ① 쓰레기 매립장 증설 ② 쓰레기 분리 수거 실시
- ③ 환경 오염에 대한 홍보 강화 ④ 무오염·저공해 기술의 개발

문 18) 다음 글의 진술 방식은?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① 설명 ② 묘사 ③ 논증 ④ 서사

문 19) 밑줄 친 부분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안은?

한국의 문화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국인 전체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겠으나, 개인들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하듯이, 문화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한국의 문화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조정하는 일은 내일의 한국이 해야 할 넷째 번 과제이다.

- ① 소비 위주의 문화를 육성시킨다.
- ② 소질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을 육성시킨다.
- ③ 사회의 법 질서를 확립한다.
- ④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을 고루 계발할 수 있는 정신 풍토를 이룩해야 한다.

문 20)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미봉책(彌縫策)
- ② 언 발에 오줌누기(凍足放尿)
- ③ 조삼모사(朝三暮四)
- ④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下石上臺)

3. 정답 및 해설

< 정 답 >

1. ③	2. ②	3. ②	4. ①	5. ②	6. ①	7. ④	8. ②	9. ④	10. ②
11. ①	12. ③	13. ①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 유형 : 한자 어휘의 이해(어휘 능력)

해결 과정 : ‘公有(공유)’와 ‘共有(공유)’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면 된다.

‘公有(공유)’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라는 뜻이고,

‘共有(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윗글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共有(공유)’가 옳다.

지 문 : 「인간의 특징」(이광규), 본문 가운데 ‘문화형의 효용’을 언급한 전개 단락이다.

[2] 출제 유형 : 상황에 적절한 어휘 파악 (어휘 능력)

해결 과정 : 인용시의 7행에서 13행까지의 대화를 통해 ‘의원’과 ‘나(서정적 자아)’는 동향 출신이며, ‘나’의 아버지뻘 되시는 ‘아무개씨’와 ‘의원’은 친구 사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뒷부분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의 정서 또한 객지를 떠돌다가 만난 고향사람에게서 느끼는 따스한 정감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과 그리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막역지간(莫逆之間)’이 정답이다.

지 문 : 「고향(故郷)」(백석)

.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

. 성격 : 서술적, 서사적, 회고적

. 출전 : 『사슴』(1936)

[3] 출제 유형 : 등장 인물의 입장 파악하기(추리 상상적 사고)

해결 과정 : 등장 인물의 입장을 파악하려면 인물의 주요 언행, 그 언행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추리하면 된다. 인용 지문에서 ‘은전 한 닢’에 대한 거지의 의식은 마지막 문장에서 두드러진다. 곧,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는 표현에서 ‘그(거지)’는 돈을 생존의 수단이 아닌 절대적 욕망(목표)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두자.

지 문 : 「은전 한 닢」(피천득)

. 갈래 : 경수필, 서사적 수필

. 문체 : 간결체, 대화체

. 주제 : 인간의 맹목적인 집착과 욕망에 대한 연민의 정

주제의 양면성 : 이 작품은 ‘삶의 목표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는 표면적 주제와 ‘인간의 맹목적 욕망과 집착이 갖는 의미’라는 이면적 주제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

[4] 출제 유형 : 시상의 전개 방식(구조의 사실적 사고)

해결 과정 : 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를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 나가는 방식을 사상 전개 방식이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순행, 역행), 공간(시선)의 이동, 어조(정서)의 변화, 점층적 전개, 제재의 나열, 이미지의 비교.대조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인용시의 사상은 역순행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시의 1연(가)에서 여승의 늙고 쓸쓸한 현재의 모습을, 2연(나)~4연(라)까지는 현재에 이르게 된 과거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시간적 순서에 맞추면 '(나)→(다)→(라)→(가)'의 순이다.

지 문 : 「여승(女僧)」(백석)

. 주제① 한 여인의 한스러운 삶 ②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

. 성격 : 애상적, 감각적

. 출전 : 『사슴』(1936)

[5] 출제 유형 : 어법에 맞는 어휘(어휘 능력)

해결 과정 '한글 맞춤법(57개항)'과 '표준어 규정(26개항)', 그리고 '표준 발음법(30개항)'을 묻는 문제는 어떤 직렬을 막론하고 2 문항 정도는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임을 숙지하자.

① 일찍이(한글 맞춤법. 25항. 붙임 2) : 부사에 '-이'가 붙어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곰곰이, 더욱이, 오탁이 등.

②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야튼/여하튼(표준어 규정 26항) : 복수 표준어

③ 적지 않은(본말)/적잖은(준말) [한글 맞춤법 39항]

[6] 출제 유형 : 시의 주제 파악(어휘 및 사실적 사고 능력)

해결 과정 : 주제는 시인이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상이나 정서를 말한다. 시의 주제는 제목(핵심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용시는 '퇴락한 고궁의 모습→역사의 허망함→울지 못하는 봉황→지난 날의 영화와 나의 외로움→봉황에게 호소'의 순서로 사상이 전개된다. 곧 퇴락한 궁궐의 모습을 서경으로 묘사한 후 작가의 심정을 후반에서 봉황새에게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고궁에서 느낀 쓸쓸함과 함께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통하는 성어는 '맥수지탄(麥秀之嘆)'이다.

지 문 : 「봉황수(鳳凰愁)」(조지훈)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성격 : 고전적, 향수적, 우국적

. 주제 : 망국(亡國)의 설움

. 출전 : <문장>(1940)

[7] 출제유형 : 함축적 의미의 추리→다른상황(작품)적용 하기(내용의 추리 상상적 사고)

해결과정 : 인용시에서 '폭포'는 큰 에너지를 가진 동적 심상의 시어로서, 용기와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를 지닌 존재, 나태와 안일을 일깨우는 선각자적 존재로 형상화 되어 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곧은 도리'는 양심과 저항과 정의의 소리이며, 이는 절도있는 의지적 삶을 촉구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폭포'의 의미에서 연상될 수 있는 인물로 「수라도(修羅道)」(김정한)의 '오봉선생'을 떠올릴 수 있다.

지 문 : (1) 폭포(김수영) • 운율 : 내재율, 산문적 진술의 반복

- 성격 : 주지적, 참여적, 산문적
- 어조 : 차분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지성인의 목소리
- 주제 : 곧음의 정신을 통한 절조 있는 의지적 삶의 추구

(2) 수라도(김정한) 해제

김정한의 <수라도>는 일제 치하 한 가문의 수난사를 소재로 하여 선비 (오봉선생)의 애국 지절의 정신과 현모양처(가야부인)의 인고의 미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선비(오봉선생)는 치안 유지법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지만 곧 세상을 떠나는 애국자로 설정되어 있다.

[8] 출제 유형 : 소설의 시점 (관점과 태도의 추리 상상적 사고)

해결 과정 : 시점이란 누가 어떤 위치에서 사건을 보고 이야기 하는가, 즉 화자의 서술 위치와 보는 관점을 말한다. 본 문제에서 항목 발췌가 미비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①은 김동인의 「감자」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②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발췌되지 않는 ③, ④항목이 정답 판단의 관건인데 응시한 수험생 몇몇의 얘기를 빌리면 ③은 「동백꽃」(김유정) 지문 ④는 「빈처」(현진건)의 미문이었던 한다. 이것을 전제한다면 ③은 1인칭 주인공 시점 ④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작품이어서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시점이라는 것이 한 편의 소설에 고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곧 시점의 복합, 혼합- 발췌된 지문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②로 답을 기재한 것은 ③의 「동백꽃」지문에서 ‘내’가 ‘점순이’의 행위를 바라 보는 시각에서 제시되어 있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9] 출제 유형 : 글의 제목 정하기 (작문)

해결 과정 : 어떤 대상을 글의 화제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제목 설정하기’이고, 대상의 어떤 측면을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주제’이다. 또한 글의 제목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인용 지문은 우리의 독서 현실을 전제로(첫째 단락)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둘째, 셋째 단락)이다. 이글의 화제는 ‘독서’이며 글의 주제는 ‘독서의 필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지 문 : 「독서와 인생」(이희승) [9 ~ 11]

- 문종 : 설명문
- 성격 : 논리적, 교양적, 예증적
- 주제 : 독서의 의의와 필요성

[10] 출제 유형 : 문맥에 적절한 어휘(속담)찾기 (어휘능력-관용적 표현)

해결 과정 : 시험 때문에 억지로 교과서를 파고 든다는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울며 겨사먹기(하기 싫은 일을 마지 못해 한다는 뜻)’가 적절하다.

[11] 출제 유형 : 어휘에 대한 지시적, 문맥적 이해 (어휘 능력)

해결 과정 : ㉠‘중지(衆智)를 모아 놓지 아니하면’의 문맥적 의미는 ‘놓은 책을 많이 읽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지 아니하면’의 뜻이다.

[12] 출제 유형 : 개요를 통한 생략된내용의 논리적 추리(작문-추리 상상 및 논리적 사고)

해결 과정 : ‘독서와 인생’이라는 교과서 지문(9~11번 참조)을 개요로 제시하고 생략된 내용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의 범주인 추론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

전제와 결론의 두 요소를 가지고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문제의 결론을 얻어 내는 연역 추론을 제시된 개요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먼저 ‘인간은 이상을 추구한다(전제①)’와 ‘이상을 실현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전제②)’는 전제에서 출발하자. 전제①, ②에서 ‘인생에는 독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지식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13] 출제 유형 : 적절한 주제문 찾기(작문)

해결 과정 : 이 문제는 주제문 작성시 유의 사항을 숙지하면 쉽게 해결된다. ②는 평서형의 완전한 문장, ③은 비유적인 표현 피함, ④불필요한 내용을 삼간다. (~라고 생각한다) 등에 저촉이 되는 문장들로 주제문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14] 출제 유형 : 어법에 맞는 어휘(어휘 능력)

해결 과정 : ②끓이다 [끄리다] (표준발음법 12항 4)

③부역을 [부어클]

④세다 [세다], 월요일 [워요일]

[15] 출제 유형 : 한문의 이해(어휘 능력)

해결 과정 : ①燕雀安知 鴻鵠之志哉(연작안지 홍곡지지재)→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작은 사람(소인)은 큰 사람(군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③適千里者(적천리자)는 三月聚糧(삼월취량)이라→천리를 가려는 사람은 3월에 식량을 구한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함을 일컫는 말이다.

④農夫(농부)는 餓死(아사)라도 枕闕種子(침결종자)라→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는 베고 죽는다. 사람은 죽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 또는 농부에게 종자는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뜻도 된다.

[16] 출제 유형 : 글의 서술 방식(구조의 사실적 사고 능력)

해결 과정 : 인용문은 ‘언어 기초의 체계성(주지)[지문의 앞단락]’에서 이어지는 글로 첫째 단락은 ‘체계의 성격(상술)’에 대해, 둘째 단락은 ‘모음 체계의 변화의 예(예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지 문 : 「언어의 체계, 구조, 기능」(이용주)

- 문종 : 설명문
- 성격 : 분석적, 설명적, 논리적
- 주제 : 언어의 체계와 구조 및 기능

[17] 출제 유형 : 내용 미루어 알기(추리, 상상적 사고)

해결 과정 : 이 문제는 ‘전제-해결 방안’의 단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화제와 논제와 관련된 필자의 주된 생각을 묻고자 하는 문제이다. 인용 지문의 앞 부분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청정 기술 연구의 시작과 무오염.저공해 기술의 보급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교과서 지문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 여부의 측정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주어진 지문이 전제라면 이 전제 속에서 해결 방안의 실마리를 수험생 스스로 찾아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유추해 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인용문에서 필자는 과학 기술자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점에 착안한다면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은 과학 기술자들이 제시해야 하는 기술의 개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은 ‘발생 후 처리 기술’ 보다는 ‘무오염.저공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청정기술의 개발에 있다.

지 문 : 「현대 과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윤순창)

- 갈래 : 과학 평론 (논설문)
- 요지 :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기술자들은 주요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가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연구력을 집중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낙관적이다.
- 주제 : 현대 과학 기술에 의한 환경 문제의 해결 전망

[18] 출제 유형 : 글의 설명 방법 (사실적 사고)

해결 과정 : 달밤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 문 : 「매밀꽃 필 무렵」(이효석)

- 주제 :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 지는 애욕의 신비성
- 출전 : <조광> (1936. 10)

[19] 출제 유형 : 전제-결론의 추리 (추리 상상적 사고)

해결 과정 : 인용 지문은 미래 한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네 번째 실천 과제에 관한

중심 단락이다. 필자는 미래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 풍토 조성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소질을 고루 계발할 수 있는 정신 풍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은 민주주의적 문화 풍토의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 문 : 「민주주의 한국의 청사진」(김태길)

- 문종 : 논설문
- 성격 : 철학적, 논리적, 논증적
- 서술상의 특징
 - ①서론 - 본론의 2단 구성
 - ②대체로 연역적인 추론에 의지하고 있다.
- 주제 : 우리 나라의 이상적인 미래상

[20] 출제 유형 : 한자 성어의 이해(어휘 능력)

해결 과정 : ①, ②, ④는 ‘임시적으로 꾸며 내는 방책’을 뜻하는 성어들이다.

③은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의미로 감사한 잔피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뜻하는 말이다 《열자(列子)의 황제편》.